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가 정서·행동장애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김 성 범* · 신 윤 희**

< 요약 >

본 연구는 일반 유아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가 정서·행동장애유아의 자아존중감 증가에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K시 소재 A어린이집의 총 26명의 정서·행동장애유아이며, 선정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각각 13명씩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선배치하였다. 사전-사후-추후 통제집단 설계방법으로 실험처치와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참여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사전-사후-추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참여집단에게는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에는 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4주에 걸쳐 주 2~3회씩 총 10회 실시하였고, 사후검사 및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문학치료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 변화량,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중재를 통하여 정서·행동장애유아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또한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서·행동장애유아의 유아의 자아존중감 하위 영역 중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어머니 수용, 자기수용 능력을 향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정서·행동장애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 정서·행동장애유아, 그림책, 문학치료, 자아존중감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BK21플러스 전임연구교수

BK21plus,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BK21플러스 전임연구교수(교신저자 : sharin62@gmail.com)

BK21plus,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전인적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유아기의 중요성은 전 생애의 삶 중에서도 가장 강조될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유아는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기초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의 신뢰로운 관계형성 및 기타 환경에 대한 적응과 성격형성을 하게 된다. 또한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판단, 그리고 자기 개념을 확립하는 시기로도 볼 수 있다. 특히 Allport(1961)는 유아기가 자아존중감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임을 강조하여, 개인의 인성이 형성되고, 발달하여,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적응과, 인간관계 형성, 또한 사회적 생활을 통한 정신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많은 연구자와 함께 의견을 모으고 있다(Harter, 1983; Mussen et al., 1990; Branden, 1994).

하지만, 현재 사회의 많은 유아들은 부모의 취업 및 가족해체로 인한 방임과 학대 등의 안정적이지 못한 사회적 환경의 문제점 등이 자녀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그것으로 인해 유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아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과 성인의 시기의 인성형성과 사회적 양태 형성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유아의 시기에 안정된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획득하는 것의 중요함은 더욱더 강조되어 진다.

문학치료는 참여자의 그림이나 동작, 시, 혹은 놀이를 해석하기 위해 치료 활동을 추구함과 동시에, 참여자로 하여금 개인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김성범, 2012; 김성범, 2015). 문학치료는 문학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치료적 방법 중의 하나이다. 특히 문학치료는 좁은 의미의 치료 과정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이기도 하고, 문학이 체험되는 과정 자체이기도 하다(김춘경, 2000). 아동에게 문학이 체험된다는 것은 그림책의 내용에서의 삶의 문제와 경험이 아동이 겪는 현실의 문제로 간접체험 혹은 문학이라는 안전한 장치 속에서 가상체험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경험은 아동에게 무한한 반복과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강점을 가짐과 동시에, 그런 선택과 행동에 따르는 정서는 고스라니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또한 변학수(2006)가 문학 글쓰기, 독서, 드라마 연행과 같은 매체를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과 인성 계발, 창의성과 자발성의 강화, 마음의 치유 그리고 심리-사회, 정신-신체 문제성의 완화를 지향하는 심리치료와 예술치료의 한 갈래라고 정의한 것에 따르면, 아동에게 그림책은 인성계발 및 교육, 치료적인 중재의 역할을 도우는 데 중요한 매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참여자의 수동적인 용어인 독서치료

(Biblio therapy)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림책을 통해 정서와 행동에 대한 변화를 표현하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정서 되돌려주기와 공감하기 연습과 실천을 통해 더 참여적이고 적극적, 구체적 표현의 영역까지 확대하는 문학치료(Literarytherapy)의 영역까지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범주라고 할 수 있다.

게슈탈트 이론으로 볼 때 문학치료에 참여하는 아동은 그림책을 통해 그림책 속의 이야기나 과거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현재의 상황으로 불러와 자신의 문제를 가상 혹은 재경험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문학치료 중재장면에서 치료자가 참여 아동들에게 그림책을 통한 활동을 한 후 “지금 기분이 어때?”라고 묻는 활동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질문을 통해 게슈탈트 이론에서 말하는 ‘미해결의 감정’이나 ‘문제’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리감에 대한 인식을 아동이 학습 혹은 훈련하는 기회제공이 가능해지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문학치료가 게슈탈트 이론에서 얻은 치료 이론적 배경이라 할 수 있겠다(채연숙, 2010).

유아의 그림책에 대한 효용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다. 우선 내용적으로 볼 때, 그림책은 유아에 있어서 책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아는 언어 능력, 시각적 호소력, 이야기에 대한 감각, 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책에 대한 즐거움으로 인식한다(이현옥, 1999). 또한 인간은 문학을 통해 다양한 인간의 정서를 경험하고 정서의 내면을 이해하게 되며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므로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이미나, 백현옥, 2015). 특히 유아에게 그림책은 그림을 보고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정서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유아의 정서적 성장을 촉진시켜 주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이미나, 백현옥, 2015; 임미숙, 이효신, 2015).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 있는 유아에게는 그림책이 주는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현아, 김소연, 2002). 그림책은 유아가 자신의 환경과 사회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이끌어 준다. 유아는 자신의 문제 상황을 그림책을 통해 겪고 해결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 능력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그림책에서 부모, 형제,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의 수용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미나, 2009).

그림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글과 그림이라는 매체의 결합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독특한 예술형식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글과 그림은 단순한 두 매체의 결합 이상의 것 즉, 다양한 관계와 배치를 통한 풍부한 의미 작용과 상상력을 일으킨다. 매체의 특성상 글과 그림은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이질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질에 관해 표현하고 있는 ‘언어’라는 점에서 동질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과 그림이 가지는 언어적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활용하고 조합하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얻기 힘든 독특한 기호 체계를 만들 수 있다(송진희, 2011). 상세히 살펴보면, 그림책은 문학

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시각적 요소인 그림 읽기의 과정은 인지적 요소까지 포함한다. 문학적 요소란 그림책에 표현되어 있는 소위 줄거리, 등장인물, 배경, 주제, 형식, 견해를 의미한다(Cullinan & Galda, 1994). 시각적 요소란 점, 선, 모양, 색, 질감, 방향, 규모, 색조 동적 효과를 의미한다(Bromley, 1995). 이러한 특징은 그림책이 문학치료에 활용될 수 좋은 조건임을 보여준다. 특히 일반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책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듣고 있진 않는다. 따라서 치료적 장면으로 몰입시키기에 힘겨운 부분을 그림책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림책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림과 글로 묘사하고 등장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친숙하게 그려내고 있다(김춘경, 1998). 아동들은 그림책을 통해 현실의 경험과 유사한 상황 또는 현실과 전혀 다른 상황을 모두 체험하고, 그것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학치료의 집단치료의 장을 통해 다른 아동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의 같음과 다름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문학치료는 그림책 속의 인물, 동물, 괴물의 주인공을 통해 그 주인공이 겪는 문제와 해결방안, 해결의 과정과 주변인물과의 갈등 및 의사소통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현실의 자신의 상황과도 비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통해 스스로가 가지는 인지적 능력과 또래, 어머니, 자기 자신의 스스로를 수용하게 되는 힘을 기르게 된다. 또한 본인의 신체적인 능력의 한계와 성장 또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주장, 정체성, 공감, 정서 표현하기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사회에서의 성장하는 아동으로서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치료에서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은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간결성과 친근함, 단순한 소재에서도 깊이 있는 주제를 이끌어 내는 능력,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도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함축성 등은 문학치료에서 그림책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준다(송진희, 2011). 그림책은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학적 표현 매체와 달리 유머나 유희와 같은 놀이적인 성격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책의 이러한 유희적인 성격은 참여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심리적 퇴행으로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림책의 유희적인 특징은 이미지의 과장과 독특한 배치 혹은 등장인물이나 상황의 역설적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송진희, 2011).

또한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의 정서 되돌려주기, 공감하기 활동의 창조의 과정은 참여아동의 무의식에 내재된 자발성과 창조성을 불러옴으로써 그 자체로 치유적인 효과를 지닌다. 즉 참여아동이 그림책에 대한 표현행위에 몰두하는 동안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역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행위는 그 자체로서 참여아동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사고와 정서를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문학치료에서 치료적 구조화를 위해 사용되는 그림그리기, 감정표현 글

쓰기, 정서 되돌려주기, 공감하기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표현매체는 창작행위 자체가 지닌 치유적인 효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아동의 저항을 약화시킴으로써 안정된 치료 관계를 성립하며, 참여아동의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심리역동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림책을 활용한 중재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폭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송성은, 강은주, 2010; 최현미, 2011; 박찬옥, 황지영, 2012; 김혜숙, 김은심, 김정희, 2013; 이미나, 백현옥, 2015). 또한 문학치료 프로그램과 유사한 독서치료, 통합적 문학 활동 등을 통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양진희, 박윤, 2009; 윤은경, 이미나, 박상희, 2013; 류철선, 조인경, 2014; 박유미, 채영문, 2014)도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의 영역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은 구체적인 중재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부모와 교사, 사회적지지 환경과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정서·행동장애의 유아가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인 장치와 계획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장애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정서·행동장애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정서·행동장애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의 지속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조사연구의 대상은 K시 소재 A 어린이집의 정서·행동장애 유아가 포함된 4개 반의, 총 26명의 유아들이다. 그 세부내용은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는 담임보육

교사추천에 의한 대상 유아 선별 과정을 거친 후, 유아행동목록표(Preschool Behavior Checklist: PBCL)를 실시하여 12점 이상인 유아를 대상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각각 13명씩 프로그램참여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선 배치하였다.

유아 행동 평가조사표(Preschool Behavior Checklist: PBCL)은 만 2세 ~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 및 행동문제를 판별하기 위한 도구로 품행문제, 정서문제, 공격성, 미성숙/고립, 사회적 위축, 대소변 문제를 포함한 6개 요인으로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McGuire & Richman, 1986).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에 0점부터 ‘어느 정도 그렇다’ 1점과 ‘확실히 그렇다’의 2점을 주는 3점 척도로 전체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 행동문제의 빈도와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정옥분, 2012). 전체점수가 12점(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판별된다(정옥분, 2012).

〈표 2-1〉 연구 대상의 집단 구성 및 특성

프로그램 참여집단				통제집단			
순번	성별	나이 (만)	PBCL	순번	성별	나이 (만)	PBCL
유아 1	남	5	14	유아 1	남	5	16
유아 2	남	5	15	유아 2	남	5	15
유아 3	남	5	14	유아 3	여	5	16
유아 4	남	5	16	유아 4	남	5	14
유아 5	여	5	18	유아 5	남	5	14
유아 6	남	5	17	유아 6	남	5	14
유아 7	여	5	14	유아 7	남	5	18
유아 8	여	5	17	유아 8	여	5	14
유아 9	여	5	16	유아 9	남	5	13
유아 10	여	5	22	유아 10	여	5	17
유아 11	여	5	16	유아 11	여	5	19
유아 12	남	5	17	유아 12	여	5	18
유아 13	남	5	15	유아 13	여	5	17

2. 연구 기간 및 장소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참여집단은 2015년 5월 6일부터 6월 3일, 총 4주에 걸쳐 문학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매 주 2~3회기를 실시하였으며 한 회기 당 30분 동안 어린이집의 일정과 프로그램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으며 총 10회기 동안 진행하였다. 그리고 통제집단에게는 아무런 처치도 가지 않았다. 4주 후, 마지막 10회기에 프로그램참여집단의 유아들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의 유아에게도 같은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 후 한 달 뒤, 두 집단의 참가자들에게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 도구

1) 측정 도구

(1)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Harter와 Pike(1984)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김영숙(1997)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영숙(1997)은 Harter와 Pike(1984)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인지적 능력, 또래수용, 신체적 능력, 어머니수용으로 이루어진 4개 하위요인에 자기 수용의 새로운 자기 평가항목의 하위요인을 추가 수정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 적용된 김영숙(1997)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5개의 하위 영역 각 6문항씩,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점수 분포는 6점에서 24점이고, 자아존중감 총점의 분포는 최저점 30에서 최고점 120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인지적 능력 .849, 또래수용 .688, 신체적 능력 .854, 어머니수용 .842, 자기수용 .864로 나타났다.

2)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의 매 회기별 활동내용은 <표 2-2>에 제시되었다. 총 각 회기당 30분씩 총 10회기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는 그림책을 활용한 정서·행동장애유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림책으로 유아, 아동에게 문학치료를 실시한 송성은, 강은주(2010), 김영애(2012), 박남이(2012)의 문학치료 및 이야기치료의 구성을 근거로 본 연구자가 유의미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토리의 내용이나 글자내용의 전달에 집중하기보다 그림책을 통한 정서변화와 유아의 정서적 변화에 대한 집중에 용이하도록 변경하여 구성하였으며, 이지연(2010)의 유아를 대상으로 주의집중과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한 그림책 활용 문학치료 프로그램 등에 제시된 도서를 참고로 하여, 회기별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1) 문학치료 프로그램 내용

〈표 2-2〉 문학치료 프로그램 활동 내용

단계	회기별 주제	주요 활동내용	도서명 (작가)	도서내용
1	알아가기	- 서로 마음열기와 별칭정하기 - 서로의 별칭 불러주고 외우기	-	-
2	마음열기	- 자신의 모습과 색깔 표현하기 - 친구의 모습과 색깔 돌아가면서 질문하기(미소 되돌려주기와 하이파이브하기)	알록달록 카멜레온 (다시토 치사토)	어딜 가든 항상 주변과 같은 색으로 변하는 자신이 너무 싫은 주인공 카멜레온 카를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를 통해 굳이 눈에 띄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히 멋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법도 배울 수 있다.
3	자기발견 관계형성	- 자기의 소극적 모습 발견하기 - 자신의 소중함과 강점을 드러내기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간 진주 (마고선더랜드)	친구들에게 놀림 받는 진주는 자신을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지만 따뜻하고 친한 도레 아줌마를 만나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게 된다. 예쁜 그림들로 꾸며진 동화책과, 동화책이 다루고 있는 중심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4	자기이해	- 자기를 표현하는 색상 만들기 (파스텔) - 자기만의 색상 감정 색상 찾기 (파스텔)	하루하루 다른 색깔 (닥터수스)	매일 바뀌는 색들을 보며 갖가지 색에는 그 색마다의 느낌이 있다는 것, 기분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색깔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중에 깨달을 수 있는 그림책이다. 몽환적으로 이어지는 색들의 향연을 보며, 색깔에 대한 감각과 정서를 발견할 수 있다.
5	또래이해	- 친구 마음을 이해하기 못했던 경험 나누기 - 오스카에게 해주고 싶은 말 쓰기 (글쓰기)	오스카는 친구가 필요해 (존 스티븐)	아기 곰 오스카와 울리가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유아용 그림책이다. 오스카가 울리와 친구가 되어가면서 좋은 친구가 되려면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내용이다.
6	또래이해	- 친구 오해하며 다툰 경험 나누기 - 친구에게 사과하는 방법 연습하기 (동작)	친구가 울까 (우치다 린타로)	친한 친구 사이인 늑대와 여우가 일으키는 신나고 즐거운 사건사고 속으로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집 안에서 밖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친구를 사귀게 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쾌하게 담아낸 이야기이다.
7	의사소통	- 실뭉치 굴리며 말하는 순서 지키기와 경청 - 경청 후 칭찬과 아껴주는 말 돌려주기(피드백, 공감하기)	부루통한 스펅키 (윌리엄 스타이그)	외톨이라는 느낌을 가진 막내 스펅키가 식구들 모두에게 화가나 말을 않자 식구들이 다 스펅키의 비위를 맞추고자 노력한다. 결국 스펅키는 화를 풀지만 쑥스러워 어쩔 줄 모른다. 아이의 심정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며 스펅키를 달래는 식구들의 이해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8	감정전달	- 타인의 생각과 감정 이해 - 타인과의 생각 차이 인식 - 경청 후 칭찬과 아껴주는 말 돌려주기 연습(피드백, 공감하기)	나는 곰입니다 (장 프랑수아 뒤몽)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낙오자를 동심의 시선에서 바라본 그림책이다. 끊임 없이 경쟁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낙오자를 곰으로 변신시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빨강, 파랑, 노랑을 주로 사용한 원색적인 그림은 복잡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잘 정돈되고 차분한 느낌을 주며, 한 화면에 따스함과 차가움이 공존한 그림책이다.
9	격려하기	• 나만의 행복나무 그리기 • 칭찬 나뭇잎 만들어 친구 나무에 붙여주기 • 칭찬과 아껴주는 말 돌려주기 연습(피드백, 공감하기)	행복한 의자나무 (량 슈린) 거인 에이트의 꽃밭에 있는 이상한 나무는 제 멋대로에다 자기밖에 몰라 언제나 외톨이었다. 그런데 거인 에이트의 칭찬으로 인하여 자기 밖에 모르던 나무는 모두에게 행복을 주면서 자신도 행복을 느끼는 “행복한 의자나무”가 되는 내용이다. 볼품없던 의자나무가 타인을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그린 책이다.
10	정리하기	• 그동안 작품들 다시 보기 •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칭찬의 말 찾아서 포스트잇에 써서 친구들 • 에게 나눠주기 • 서로에게 고마움과 칭찬 나눠주기 (피드백, 공감하기) • 사후검사	-

(2)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내용의 타당도 검증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각 회기의 구성과 활동이 적합한가를 문학치료 및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평정을 의뢰하였다. 참여한 전문가들은 특수교육 및 치료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4명이었다. 연령은 38세에서 52세였고, 평균연령은 46.3세였으며, 평균상당경력 9.75년이었다. 평정점수는 각 활동 내용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5점은 ‘매우 적합하다’를 1점은 ‘거의 적합하지 않다’를 의미한다. 평정결과는 Haxbleton 등(Guilford & Fruchter, 1973)의 내용타당도 평정법(Content Validity Index: CVI)에 의해 산출하였다. 각 회기별 목표에 맞게 구성한 34개의 각 단위 활동에 대해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적합하다’와 ‘매우 적합하다’의 4점과 5점에 평정한 점수의 합은 630이고, 1~5점까지에 평정한 총 전체 합계점수는 680점이어서 내용타당도 $CVI=630/680=.93$ 이었다.

3) 연구 설계

사전-사후-추후 통제집단 설계방법으로 실험처치와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참여 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사전-사후-추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참여집단에게는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에는 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표 2-3〉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설계

문학치료 프로그램	사전측정	프로그램	사후측정	추후측정
참여집단	사전측정 1	실시	사후측정 3	추후측정 5
비참여 집단	사전측정 2	비실시	사후측정 4	추후측정 6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은 사회과학조사꾸러미 20.0(SPSS 20.0 for windows)을 사용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문학치료 프로그램 실시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 변화량,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조현춘 등, 2011).

Ⅲ. 연구 결과

1. 두 집단(참여, 비참여)의 프로그램 효과 분석

1) 자아존중감

(1)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량

문학치료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1〉과 같다.

〈표 3-1〉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량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학치료 프로그램	사전측정	사후측정	변화량	확률값
참여집단	73.46(5.90)	94.62(10.81)	21.15(10.73)	.000***
비참여 집단	70.00(10.12)	68.46(10.09)	-1.54(9.02)	

***확률값<.001

문학치료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량의 평균값은 21.15(10.73)이었다. 비참여 집단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량의 평균값은 -1.54(9.02)이었다.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량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량에 대한 분산 분석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분산비	확률값
프로그램 실시여부	3347.115	1	3347.115	34.083	.000***
오차	2356.923	24	98.205		
전체	5704.038	25			

***확률값<.001

문학치료 프로그램 실시여부에 따른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량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분산비 (1, 24)=34.083, 확률값(p)<.001]. 즉,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정서·행동장애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시 말해,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

(2) 사전-추후 자아존중감 변화량

문학치료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의 사전-추후 자아존중감 변화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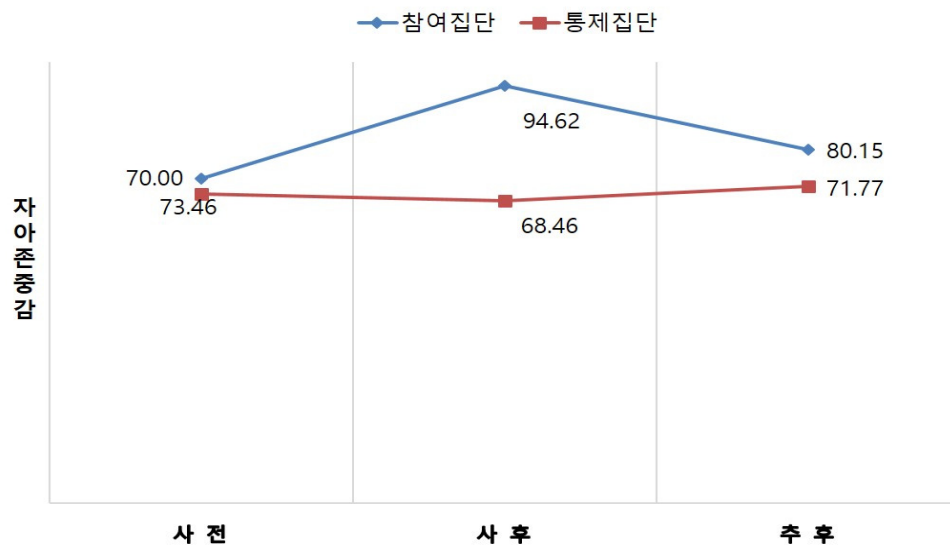
<표 3-3> 사전-추후 자아존중감 변화량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학치료 프로그램	사전측정	추후측정	변화량	확률값
참여집단	73.46(5.90)	80.15(14.28)	6.69(10.35)	.239
비참여 집단	70.00(10.12)	71.77(9.14)	1.77(10.45)	

문학치료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사전-추후 자아존중감 변화량의 평균값은 6.69(10.35)이었다. 비참여 집단의 사전-추후 자아존중감 변화량의 평균값은 1.77(10.45)이었다. 사전-추후 자아존중감 변화량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3-4>과 같다.

〈표 3-4〉 사전-추후 자아존중감 변화량에 대한 분산 분석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분산비	확률값
프로그램 참여여부	157.538	1	157.538	1.457	.239
오차	2595.077	24	108.128		
전체	2752.615	25			



〈그림 3-1〉 사전-사후-추후 자아존중감의 변화량

문학치료 프로그램 실시여부에 따른 사전-추후 자아존중감 변화량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분산비 (1, 24)=1.457, 확률값(p)>.05]. 즉,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정서·행동장애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의 지속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은 지지되지 않았다.

(3)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변화량

문학치료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의 변화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5>과 같다.

〈표 3-5〉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변화량의 평균과 표준편차

	프로그램 참여 집단			비참여 집단			확률값
	사전측정	사후측정	변화량	사전측정	사후측정	변화량	
인지적 능력	14.85 (2.30)	19.69 (2.84)	21.15 (10.73)	16.15 (2.34)	14.08 (1.55)	-2.08 (2.70)	.000***
또래 수용	14.62 (1.98)	17.31 (2.21)	4.85 (3.34)	11.54 (2.40)	13.31 (2.87)	1.77 (2.59)	.331
신체적 능력	15.08 (2.18)	19.00 (2.55)	3.92 (2.57)	13.08 (2.25)	13.46 (2.88)	.38 (2.22)	.001**
어머니 수용	14.62 (2.53)	19.69 (2.45)	5.08 (3.12)	16.54 (3.02)	13.38 (2.76)	-3.15 (3.00)	.000***
자기 수용	14.31 (3.38)	18.92 (3.90)	4.62 (2.66)	12.69 (2.43)	14.23 (2.17)	1.54 (1.81)	.002**

확률값<.01, *확률값<.001

문학치료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인지적 능력의 사전-사후 변화량의 평균값은 21.15(10.73)이었다. 비참여 집단의 사전-사후 인지적 능력의 변화량의 평균값은 -1.54(9.02)이었다. 문학치료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또래 수용의 사전-사후 변화량의 평균값은 4.85(3.34)였고, 비참여 집단의 사전-사후 또래 수용의 변화량의 평균값은 1.77(2.59)이었다. 문학치료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신체적 능력의 사전-사후 변화량의 평균값은 3.92(2.57)였으며, 비참여 집단의 사전-사후 신체적 능력의 변화량의 평균값은 .38(2.22)이었다. 문학치료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어머니 수용의 사전-사후 변화량의 평균값은 5.08(3.12)이었으며, 비참여 집단의 사전-사후 어머니 수용의 변화량의 평균값은 -3.15(3.00)이었다. 그리고 문학치료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자기 수용의 사전-사후 변화량의 평균값은 4.62(2.66)였으며, 비참여 집단의 사전-사후 자기 수용의 변화량의 평균값은 1.54(1.81)이었다.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의 변화량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3-6>과 같다.

〈표 3-6〉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변화량에 대한 분산 분석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분산비	확률값
인지적 능력	311.538	1	311.538	33.891	.000***
또래 수용	5.538	1	5.538	.984	.331

신체적 능력	81.385	1	81.385	14.154	.001**
어머니 수용	440.346	1	440.346	47.051	.000***
자기 수용	61.538	1	61.538	11.881	.002**

확률값<.01, *확률값<.001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능력 하위요인의 변화량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분산비 (1, 24)=33.891, 확률값(p)<.001]. 이는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인지적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래 수용 하위요인의 변화량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분산비 (1, 24)=.894, 확률값(p)>.05]. 신체적 능력 하위요인의 변화량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분산비 (1, 24)=14.154, 확률값(p)<.01]. 이 유의한 차이는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신체적 능력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 수용 하위요인의 변화량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분산비 (1, 24)=47.051, 확률값(p)<.001]. 이 유의한 차이는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어머니 수용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수용 하위요인의 변화량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분산비 (1, 24)=11.881, 확률값(p)<.01]. 즉,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자기 수용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4) 사전-추후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변화량

문학치료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의 사전-추후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의 변화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7>과 같다.

<표 3-7> 사전-추후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변화량의 평균과 표준편차

	프로그램 참여 집단			비참여 집단			확률값
	사전측정	추후측정	변화량	사전측정	추후측정	변화량	
인지적 능력	14.85 (2.30)	16.77 (2.90)	1.92 (1.94)	16.15 (2.34)	14.77 (2.28)	-1.38 (3.33)	.005**
또래 수용	14.62 (1.98)	14.92 (3.82)	.31 (3.18)	11.54 (2.40)	12.54 (2.57)	1.00 (1.78)	.499
신체적 능력	15.08 (2.18)	15.77 (2.77)	.69 (1.49)	13.08 (2.25)	14.77 (2.92)	1.69 (1.97)	.158

어머니 수용	14.62 (2.53)	16.69 (2.50)	2.08 (3.45)	16.54 (3.02)	16.00 (2.20)	-.54 (3.21)	.058
자기 수용	14.31 (3.38)	16.00 (4.67)	1.69 (2.18)	12.69 (2.43)	13.69 (2.81)	1.00 (3.51)	.551

**확률값<.01

문학치료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인지적 능력의 사전-추후 변화량의 평균값은 1.92(1.94)이었다. 비참여 집단의 사전-추후 인지적 능력의 변화량의 평균값은 -1.38(3.33)이었다. 문학치료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또래 수용의 사전-추후 변화량의 평균값은 .31(3.18)이었고, 비참여 집단의 사전-추후 또래 수용의 변화량의 평균값은 1.00(1.78)이었다. 문학치료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신체적 능력의 사전-추후 변화량의 평균값은 .69(1.49)였으며, 비참여 집단의 사전-추후 신체적 능력의 변화량의 평균값은 1.69(1.97)이었다. 문학치료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어머니 수용의 사전-추후 변화량의 평균값은 2.08(3.45)이었으며, 비참여 집단의 사전-추후 어머니 수용의 변화량의 평균값은 -.54(3.21)이었다. 그리고 문학치료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자기 수용의 사전-추후 변화량의 평균값은 1.69(2.18)였으며, 비참여 집단의 사전-추후 자기 수용의 변화량의 평균값은 1.00(3.5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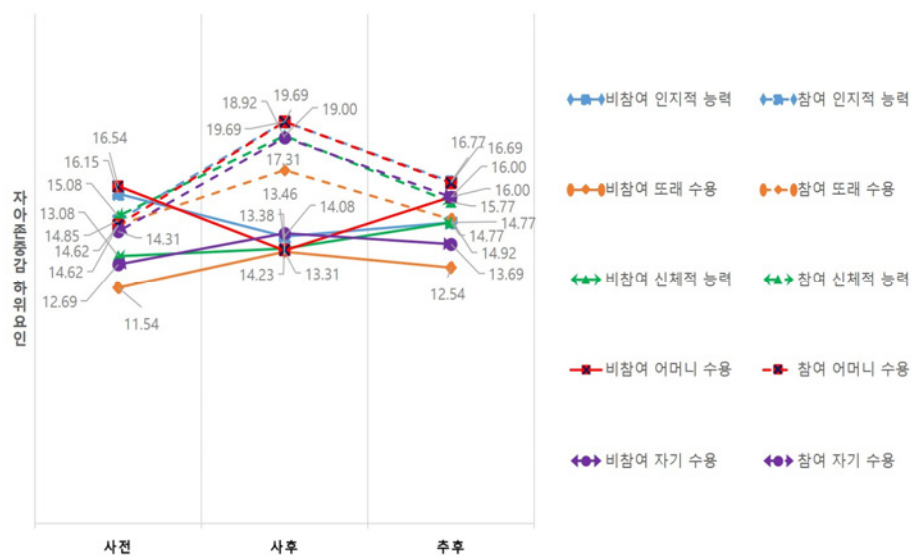
사전-추후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의 변화량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3-8>과 같다.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능력 하위요인의 변화량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분산비 (1, 24)=.589, 확률값(p)<.01]. 즉, 문학치료 프로그램에 의한 인지적 능력 증가 효과는 추후에도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또래 수용 하위요인의 변화량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분산비 (1, 24)=.471, 확률값(p)>.05]. 신체적 능력 하위요인의 변화량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분산비 (1, 24)=2.121, 확률값(p)>.05]. 어머니 수용 하위요인의 변화량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분산비 (1, 24)=.950, 확률값(p)>.05]. 마지막으로 자기 수용 하위요인의 변화량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분산비 (1, 24)=.365, 확률값(p)>.05].

〈표 3-8〉 사전-추후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변화량에 대한 분산 분석

	제공합	자유도	제공평균	분산비	확률값
인지적 능력	71.115	1	71.115	9.589	.005**
또래 수용	3.115	1	3.115	.471	.499
신체적 능력	6.500	1	6.500	2.121	.158
어머니 수용	44.462	1	44.462	3.950	.058
자기 수용	3.115	1	3.115	.365	.551

**확률값<.01



〈그림 3-2〉 사전-사후-추후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의 변화량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정서·행동장애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유아들에게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집단의 정서·행동장애유아는 이를 제공받지 않은 통제집단의 정서·행동장애유아에 비해 자아존중감 향상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 또한 유아의 자아존중감 하위 영역 5개 중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어머니 수용, 자기 수용 능력의 4개의 영역에서 두 집단 간 변화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은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정서·행동장애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있어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정서·행동장애 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하위 영역 중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어머니 수용, 자기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보고되었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 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송성은, 강은주, 2010; 최현미, 2011; 박찬옥, 황지영, 2012; 김혜숙, 김은심, 김정희, 2013; 이미나, 백현옥, 2015)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학치료 프로그램과 유사한 문학 활동, 독서활동, 독서치료 등을 통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양진희, 박윤, 2009; 윤은경, 이미나, 박상희, 2013; 류철선, 조인경, 2014; 박유미, 채영문, 2014)의 결과 또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의 주요 매체인 그림책이 유아에 있어서 책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참여한 정서·행동장애 유아는 언어 능력, 시각적 호소력, 이야기에 대한 감각, 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책에 대한 즐거움으로 인식(이현옥, 1999)하여 정서적인 체험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하기 위한 정서적 기회(이미나, 백현옥, 2015)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서·행동장애 유아는 문학치료를 통해 그림책 속의 인물, 동물, 괴물의 주인공을 통해 그 주인공이 겪는 문제와 해결방안, 해결의 과정과 주변인물과의 갈등 및 의사소통 등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가 가지는 인지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 인식, 어머니 수용, 그리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를 수용하게 되는 힘을 기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주장, 공감, 정서 표현하기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은 그림책을 매개로 대화를 통해 자신을 반영하고 자발적인 반응으로 발달된다는 연구(김현희, 2001)와 그림책 활동의 핵심은 처음 주어지는 자극으로서 자료 자체 보다는 자신과 통합적 이해를 중요한 목적으로 보는 일련의 치유과정(김현희, 2001)이라고 보고된 연구와도 그 치료적 효과성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의 정서 되돌려주기, 공감하기 활동의 창조의 과정을 연습,

학습함을 통해 참여유아의 무의식에 내재된 자발성과 창조성을 불러옴으로써 정서·행동 장애유아에게 그 활동 자체로 치유적인 효과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즉 참여유아가 그림 책에 대한 정서 표현행위에 몰두하는 동안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역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 표현행위를 통해 참여유아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유아의 사고와 정서를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정서·행동장애 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의 지속성에 있어서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가지는 인지발달적 특성에 기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아의 특성상 유아기동안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와 효율성이 증진된다. 그러나 아동에 비해 정보에 대한 주의집중력, 기억, 용량, 기억, 전략 등 여러 가지 정보처리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정옥분, 2004). 이처럼 유아의 인지발달적인 특성상 즉각적인 반응에 대한 지속력, 혹은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에 대한 지속력이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추후에는 효과가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추후의 지속력까지 감안 하여 10회나 12회기 정도의 한 전체 프로그램 이후에 따르는 추가 프로그램 또한 함께 고려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적용회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전체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빈도를 자주 함으로써 향상되는 주기를 짧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유아의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5세 정서·행동장애유아를 대상으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정서·행동장애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 활용하는 방법에 이르도록 도와줌으로써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 연구로만 실시하였으므로 정서·행동장애유아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질적 연구를 통해 정서·행동장애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지배하는 세부요소들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참여내용 중 세부사항의 어떠한 부분들이 작용하여, 변화를 보였는지를 상세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대상 유아가 특정한 한 지역의 어린이집에 소속되고 또한 이 어린이집의 가족 들이 경제적인 지원과 관심이 많은 사회적 환경 군에 속한, 정서·행동장애유아로 제한됨 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전반적인 어린이집이나 전 지역의 정서·행동장애유아에게 일반 화시키기는 무리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어린이집의 정서·행동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경희 (2014). 그림책을 활용한 표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범 (2012). 표현중심 문학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범 (2012). 표현중심 문학치료가 사관후보생의 우울 감소 및 자아존중감 증가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2), 31-53.
- 김세희, 강순미 (2008). 그림책 읽기 및 관련활동을 통한 유아의 행복에 대한 개념 확장. **어린이문학교육**, 9(2), 119-139.
- 김승희 (2009). 그림책을 활용한 다문화교육활동이 유아의 편견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애 (2012).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사회적 위축아동의 사회기술과 마음읽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1998).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 주는 가정환경의 제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 (2008). 그림책을 활용한 토의 및 협동적 집단게임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경 (1998). 동화의 치료적 힘을 이용한 놀이치료. **놀이치료연구**, 2(2), 19-33.
- 김춘경 (2000). 문학의 치료적 기능을 이용한 놀이치료: 독서치료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4(2), 3-27.
- 김현희 (2001).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 김혜숙, 김은심, 김정희 (2013) 그림책을 활용한 노인이해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2, 163-184.
- 류철선, 조인경 (2014). 행복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활동이 유아의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아동보육연구**, 10(1), 5-22.
- 박남이 (2012).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아동의 공격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유미, 채영문 (2014).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문학활동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원.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창조교육학회지**, 16, 141-158.
- 박찬옥, 황지영 (2012). 그림책을 활용한 배려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0(4), 221-244.
- 변학수 (2006). **통합적 문학치료**. 서울: 학지사.
- 변윤희, 현은자 (2004).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幼兒教育研究**, 24(5), 311-336.
- 서현아, 김소연 (2002). 그림책과 관련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 학회지**, 9(2), 1-34.
- 송성은, 강은주 (2010).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나누기가 유아의 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독서치료연구, 3(1), 121-138.
- 송지은 (2013). 그림책을 활용한 신체표현활동이 ADHD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진희 (2011). 그림책의 창의성과 문학치료에 대한 토론: 그림책의 창조성이 갖는 특수성과 문학치료에서의 기능과 역할. **대한문학치료학회 제3차 학술대회**, 55-66.
- 양진희, 박 윤 (2009). 또래관계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활동이 비인기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123-152.
- 우수경 (2002). 유아의 정서 능력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선휘 (2014).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행복 프로그램이 유아의 행복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경, 이미나, 박상희 (2013).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독서치료연구**, 5(1), 25-41.
- 이기영 (2006).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나 (2009). 상호작용적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놀이표현력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나, 백현옥 (2015). 그림책을 활용한 인권교육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홀리스틱교육연구**, 19(1), 99-119.
- 이지연 (2010).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유아의 주의집중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옥 (1999). 글 없는 그림책과 학습자 통제유형의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 학습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6(1), 47-59.
- 임미숙, 이효진 (2015). 발달지체 유아의 어휘력 향상을 위한 동화와 그림카드 활용.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3), 293-310.
- 장영숙, 정수정 (2009).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그림책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4), 73-97.
- 정유진, 김민진 (2011). 그림책 읽기 후 역할극 활동이 유아의 존댓말 학습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2), 21-42.
- 정옥분 (2012). **아동심리검사**. 서울: 학지사.
- 정옥분 (2004). **영유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현춘, 조현재, 문지혜, 이근배, 홍영근, 왕가년, 백미숙, 안정현, 조현아 (2011). **쉽고 재미있는 논문연구법**.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채연숙 (2010). **글쓰기 치료-이론과 실제**.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최현미 (2011).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변인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정희, 서정숙 (2009). 그림책 읽어주기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0(2), 125-147.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 Brandon, N. (1994). *The Six Pillars of Self-esteem*. New York: Bantam.
- Bromley, K. D. (1996). *Webbing with literature: Creating story maps with children's books, 2nd ed.* Boston: Allyn & Bacon(재인용 이연규(1999). 글 없는 그림책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시각적 문해, 추론, 구두언어 및 확산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Cullinan, B., & Galda, L. (1994). *Literature and the child. Fort Worth, TX: Harcourt Brace*(재인용 이연규(1999). 글 없는 그림책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시각적 문해, 추론, 구두언어 및 확산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69-1986.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275-386).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C. (1990).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7th ed.). New York: Harper & Row.

<Abstract>

The Effects of Literary Therapy Program by Using Picture Books on the Self-Esteem of Preschoolers for EBD

Kim, Sung Bum · Shin, Yun He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using literary therapy program by using picture books to increase the self-esteem of preschoolers for EBD. The participants are 26 preschoolers who under the age of 5, of a nursery school located in 'K' City. 13 preschoolers who agreed to participate were the experiment group, the other preschoolers were the control group.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literary therapy program by using picture books was an effective intervention technique for preschoolers with emotional and behavior problems. The study provided empirical data how to apply and utilize literary therapy program by using picture books as a tool of integrated therapy with emotional and behavior disabled preschoolers based upon the results, and the value of the study can be found in the empirical data.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literary therapy program by using picture books was effective to increase the self-esteem of preschoolers for EBD.

Key Words : *Preschooler for EBD, Picture book, Literary therapy, Self-esteem*

논문접수 : 2016. 01. 28 / 논문심사일 : 2016. 03. 08 / 게재승인 : 2016. 03. 18
--